"모두의 결집된 힘 발휘할때"

인터뷰…조영식총장과 함께

-지난 24일 '알버트 아인쉬타인' 재단으로부터 '아인쉬타인 평화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학내외에 산적해 있는 여러난제들을 해결하는 와중에 들려온 기쁜소식이라 총장님 뿐만 아니라 경희인에게도 하나의 자랑이라고 여겨집니다. 최근의 근황은 어떠신지요.

▲ 며칠전 아인쉬타인재단으로부터 수상소식을 접하고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경희의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상은 제 개인에게 수여된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전개해온 모든 경희인에게 수여된 상이라 생각합니다.

요즈음도 언제나 다름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90학년도는 경희가 내적·외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90학년도 학원운영을 평가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90학년도야말로 90년대와 2천년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해라 생각갑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여건 조성으로는 이미 88학년도부터 추진해온 '대학 장·단기 발전계획'을 들 수 있으며 올해는 교수연구년제, 학내전산망 구축등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 계획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기 발전개획의 꾸준한 추진은 올해의 큰 성과로 여겨지며, 교육의 내실화와 학문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 대학과의 많은 교류도 올해의 큰 성과라 생각됩니다. 아울든 90학년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경희가 내실있게, 그리고 추진력있게 2천년대, 90년대를 향해 성큼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민주적 절차 따르면 바람직

제2의료원 계획완료 "재원확보에 큰 도움될듯"

" 장단기 발전계획의 추진과 활발한 국제교류는 올해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 "

-최근 몇년간 경희는 활발한 건설현황, 교수충원등 양적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이제는 연구풍토의 조성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당국과 총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방금 지적했듯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때라 생각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단기 발전계획이나 활발한 국제교류의 추진, 교수충원도 결국 학문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외적성장과 내적성장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덧붙여서 앞으로 조화·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뿐만 아니라 교수·학생·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난 88년 '학원자주화투쟁' 이후 등록금 협상, 교과과정 개편등에서의 학생참여가 대폭확대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교수채용의 학생참여 여부와 그 폭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원의 민주화·행정의 공개화는 총장으로서 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여러번 강조한 사실입니다.

교수, 학생, 직원 할것없이 누구나가 경희의 주인이며, 주체자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와 교수들에게 잘못된 점 비판해주는일은 학원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전 교수공채문제를 놓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때 '경희공동체속에 교수따로 학생따로 일 수는 없으며 모든것은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모든면에서 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어야하며, 이미 경희는 행정의 공개화와 더불어 학생참여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의 국제교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는 일찌기 '학문의 국제화'를 모토로 국제적인 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노력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현재 세계유수의 40여개 대학과 활발한 학술교류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올해들어서도 스페인의 마드리드대학, 캐나다 콜롬비아 대학등과 자매교류를 맺은것은 큰 성과라 여겨집니다.

이밖에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 아이레스대학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 국립코스타리카 대학, 볼란서 리용 대학등과도 학술교류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전부터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협의하고 있으며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7월 소련 모스크바대학과 학술교류에의 원칙적 합의를 본것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경희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획기적인 계기로 그 의의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국제교류의 활성화는 국제적인 면모의 대학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는 토대가 되며, 다양한 학술교류, 교수 및 학생의 교환등을 통해 학문의 국제화를 꾀하는 것이 국제교류의 근본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가인상, 누적되는 등록금 인상, 많은 건설공사등으로 인해 학내 재원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내재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요, 여타 대학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의 특별한 지원없이 학내의 인건비만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내 여러곳에 투자할 것이 어느곳보다도 많아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로 중요하지만 특히나 재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생각하는 일이지만 총장으로서 제가 할 일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총장으로서, 대학의 설립자로서 재원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덧붙여 본교의 재단은 그 어느 대학의 재단보다도 튼튼하며, 건실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재단에서는 작년에 30억원을 올해에는 20억원을 각각 전입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단의 전입금을 확충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단은 궁극적으로 수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학교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단체협약이 곧 진행될 예정인데 평소 대학의 노조활동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뜻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노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노조이전에 한 울타리안의 경희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수고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경희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2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현재의 상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2의료원 약1천억원에서 2천억원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경희의 대역사입니다. 사실 병원부지만 몇년전에 고덕지구에 마련해 놓았으나 구체적 계획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몇차례 수정, 보완한 결과 얼마전에 최종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제2의료원은 특수 클리닉병원으로 설립될 것이며 약1천침상의 대규모가 될것입니다. 제2의료원이 완성되면 본교 의과대학과, 경희의학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현재의 경희의료원과 함께 본교의 재원확보에 막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경희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의 경이적 발전을 지나 80년대 들어 학교가 약간의 침체기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집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 협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도 지도자가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며, 아무리 지도자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끌어도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경희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준희 記者 〉

◇생명공학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제언

본고는 현대 과학기술 연구동아리 '부싯돌'의 토론에 의거해 집필된 것으로 과학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한 글입니다. 〈편집자註〉

일부학자 백신개발 과정서 에이즈균 파생 주장

생화학 연구 따른 부작용 및 재해 방지책 시급

가공할 전염성을 지니고 치유방법에 대책이 없는 AIDS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AIDS는 우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공할 속도로 무서우리 만큼 번져나가고 있다. 이 AIDS바이러스의 특징은 공기중에도 유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눈물속에서도 AIDS바이러스 발견) 발표되었다.

AIDS의 발병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AIDS바이러스가 예전에서부터 있었으나 전에는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이유로 발견할 수 없었을 뿐인 것이다.. 즉 다시말하면 자연으로부터 과학기술이 관찰할 수 있는 한계상황이 넓어졌기 때문에 AIDS바이러스 관찰이 가능해 질 수 있었다. 둘째는 생화학적 연구실험실에서 생화학적인 무기로 개발이 되었다가 AIDS바이러스가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기존에 AIDS질병이 가져오는 특이한 병의 성격이 나타났다는 기초의 보고가 없었고 일정기점 이후로 급속히 유발되었던 때문이고 동성연애자는 B.C 300년전부터 있었다는 문헌보고와 일정 시점으로 인한 급속한 동성연애자를 중심으로 AIDS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점, 그리고 생화학적인 무기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이다. (미국의 레이건 집권시 생물학 무기개발에 기존보다 4배이상 자본투자). 이런 모든점을 추측하여 볼때 생화학적 무기로 개발이 되었다가 그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또다른 견해가 있다. 그것은 예방접종에서부터 AIDS가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들의 맞고 있는 예방접종은 과연 안전한가? 예방접종은 생물학적 특징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1차로 소나 돼지에 주사하여 무력화시킨 균을 인체에 재투여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자체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과학기술의 한계가 소나 돼지등에서 무력화된 균을 추출할때 동시에 추출되어 나오는 바이러스등 세균을 측정하지 못할 수 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1987년 호주에서는 1만 4천마리의 소가 백혈병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진드기의 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한 예방백신이 백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존실레 박사는 예방주사약과 AIDS등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아래와 같이 말한다.

"아프리카에서 AIDS가 갑자기 발생한 현상을 보면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시행한 천연두 박멸캠페인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 AIDS의 등장은 동성연애자를 중심으로 B형간염 백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전파되었다고 L.A의 로버트 스트래커 박사는 말하고 있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의 대량생산은 인간생활에 엄청난 이로움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생명공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과학의 수준이 기술로서 전파되어지며, 실제 삶속에서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어설픈 핵에 대한 발전이 지금 핵의 공포에서 살게 하는 세상을 만든것과 같이, 어설픈 생명공학의 연구는 또 한번 인류에게 공포를 안겨다 줄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어설픈 과학의 성과가 산업화되어 공포를 안겨다 주게되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해 어설픈 과학기술이라도 도입을 시도하려는 현 자본주의 체계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먼저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했을때 오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급부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모체인 KIST는 미국의 자본(50:50 이었음)과 기술지원으로 세워진 것이며, 자본의 지원은 곧 자본의 종속화에 따른 기술적인 종속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종속적인 결과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 소위 순수과학이라는 연구는 미비하고 응용과학만 비대하게, 불균등하게 발달을 하게 된것이다. 특히 KIST의 구조가 교묘해서 미국의 직·간접 자본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그 연구의 성과물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두뇌유출현도 적지 않으며, 미국은 제3세계 국가에게 위험도가 높은 실험을 떠 맡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위험도가 높은 실험은 미국의 생화학 무기개발 계획(B.D.R.P)에 따른 고려대학교의 관련 보고서에서 잘 나타난다. 미 육군의 생화학적 무기개발 연구계획의 요지를 보면 "생화학 방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연장으로(B.D.R.P)의 목적과 필요성은 생화학전에 대한 견고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향상하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천문학적으로 다양한 종 사이에 생물학 무기에 대한 방어는 실제로 불가능 하다. 이러한 목적의 모호성은 미 국방성의 지도아래 공격용 무기 개발 연구임을 부인할수 없다.

이에 대해 미 국방성에서는 타국의 생물학적인 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력이란 말로 해명하고는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IDS가 생화학적 무기에 의해 유출된 것이라는 견해와 비교해 보면서 바로 고려대학교에서 연구되고 있는 B.D.R.P는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의 땅 대학의 연구실에서 진행 되고 있으며 그 위험성도 미 국방성의 위험도 구분 I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때 우리의 과학기술 연구과제의 대중적 공감과 아울러 이런 연구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안 도 훈

〈유전·3〉

학술정보

레이저 연구소 초청 세미나

본교 레이저공학연구소(소장 이주희교수)는 오는 8일 공과대학 세미나실(213호)에서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광컴퓨터기술의 최근 동향과 마이크로 챠넬 SLM방법(The Present Status and Micro-Channel Plate SLM in Optical Neural Computing Technology)'이란 제목으로 실시되는 이번 강연회는 일본 츄쿠바(Tsukuba) 대학 토요히코 야타가이(Toyohiko Yatagai)교수가 강연을 할 예정이다.

대기 오염 심포지움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와 대학원은 오늘 오후2시 산업대학관 시청각실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가진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김신도(서울시립대환경공학과)교수의 '실내대기오염', 김희강(건국주대 환경공학과)교수의 '산성비'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소련 정치 경제 사전' 출간

제28차 소련공산당대회. 1990년 7월2일부터 12일간 모스크바에서 외국대표단 초청없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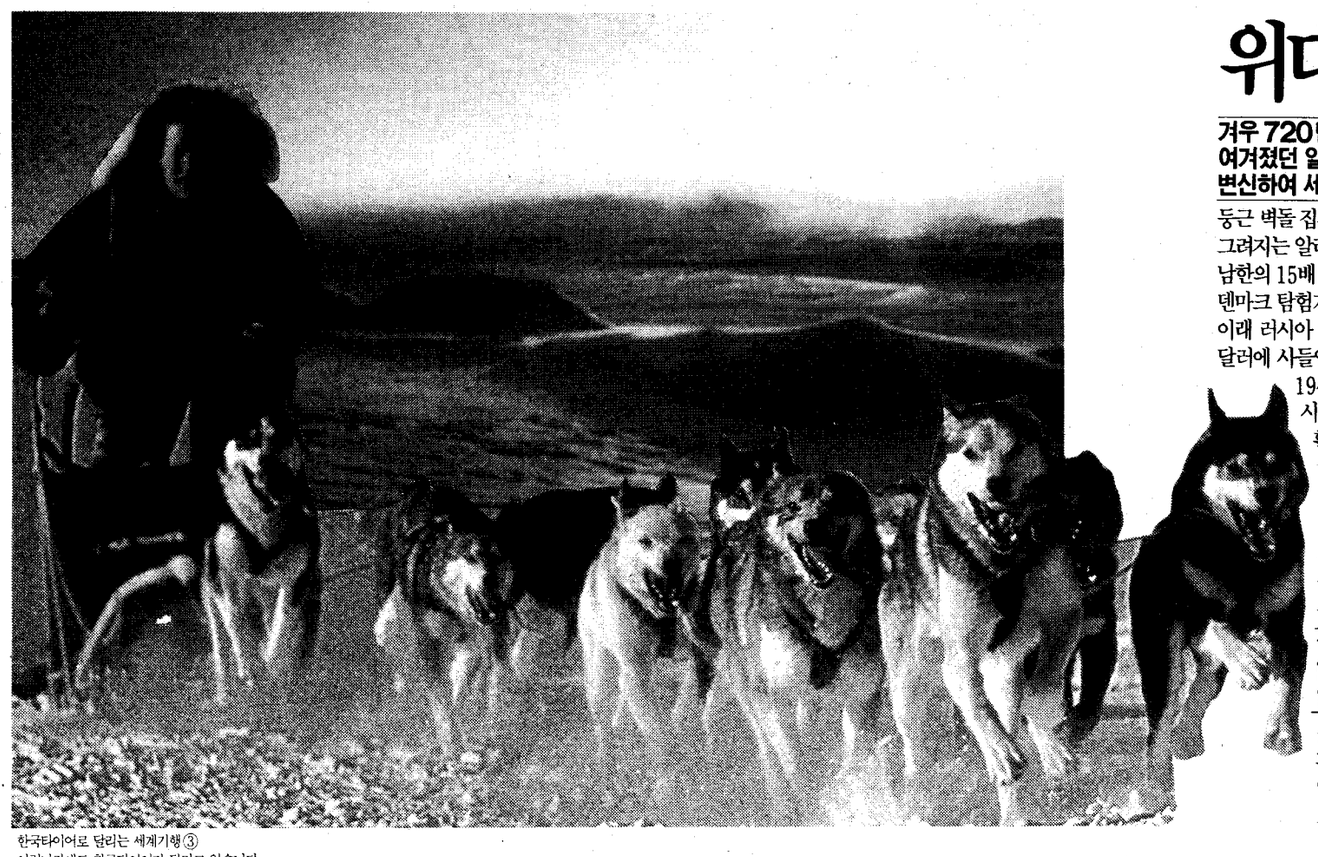
대통령권한 강화,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기개최된 이 당대회에서 당지도체제가 개편되고 당 서기장에 고르바초프가 재선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각 부분에 걸쳐 소련의 성격을 알려주는 1백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책은 물론 소련을 단일 주체로 삼은 최초의 사전이다. 멘셰비즘, 10월혁명부터 올들어 개정된 헌법, 당강령, 시장경제 개혁을 주창한 샤탈린안 등 최근 소련내 변화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한국대사관이 문을 여맞춰 발간된 이 책은 갑자기 가깝게 다가온 소련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어는 역시 — 한국타이어

안전으로 지켜가는 행복한 사회
한국 타이어



한국타이어로 달리는 세계기행③
이런나라에도 한국타이어가 달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내일의 땅 — 알래스카

겨우 720만 달러의 쓸모없는 냉장고 땅이라 여겨졌던 알래스카, 이제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변신하여 세계의 미래를 짊어지다.

둥근 벽돌 집과 털가죽을 뒤집어 쓴 에스키모가 그려지는 알래스카, 미국의 49번째 주.
남한의 15배 면적에 인구는 겨우 40여 만.
덴마크 탐험가 베링에 의해 1741년 최초로 발견된 이래 러시아 영토였다가 1867년 미국이 720만 달러에 사들인 땅.
19세기 말 금광발견과 함께 개발되기 시작하여 어업, 광업, 임업, 목축등이 활발하고 대륙간 항공로의 중간 기착지로,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 구리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북극해연안의 대유전, 다양한 수산자원은 미래의 보고라 일컫는 데 손색이 없는 땅입니다.

썰매개들의 지친 숨소리 대신 한국타이어가 힘차게 달리고 있는 알래스카

짧은 여름을 제외하고 연중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알래스카에서 예로부터 썰매는 알래스카 에스키모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 운송수단. 따라서 썰매를 끄는 그들의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썰매개는 지금도 알래스카를 비롯한 극지방에서 개썰매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알래스카의 혹한도 한국 타이어에게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한차원 앞선 기술과 탁월한 성능, 뛰어난 안전성으로 세계의 오지까지 인간의 발이 닿는 곳 어디서나 한국 타이어가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150여국에 수출되어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한국 타이어 –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타이어로 우리의 얼을 빛내고 있는 자랑스런 기업입니다.

한국타이어
TIRE